

2023. 6. 23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

아이돌봄담당관

김연주

2133-4801

돌봄총괄팀장

이동주

2133-4802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5쪽

담당자

김현정

2133-4804

서울시, 민간 키즈카페 전용 상품권 발행으로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나선다

- 민간 키즈카페 ‘서울시 인증제’ 도입, 20% 할인혜택이 있는 ‘서울형키즈카페상품권’ 9월·11월 발행
- 민간업체와의 상생 노력 및 키즈카페 이용시민 부담완화...민간과 함께 ‘서울형 키즈카페’ 확충
- 7월 중 참여업체 모집, 9월부터 약 1년간 서울형 인증시설로 각종 혜택 부여
- 민간 키즈카페 사전 의견수렴 조사 결과 91.0% ‘서울형 인증제’ 참여의향 밝혀

- ‘서울형 키즈카페’ 확대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고, 아이, 양육자,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‘서울형 인증제’를 새롭게 도입한다.
- ‘서울형 인증제’ 도입과 함께, 서울형 인증을 받은 키즈카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인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를 발행하고, 20%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. 아이를 둔 양육자는 좀 더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,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는 손님을 확대 유치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.
- 서울시 어린이집 및 초등돌봄시설 이용 양육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민간 키즈카페 이용 시 평균 소요비용이 2~3만 원(41%)이었으며, 민간 키즈카페 이용 중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비싼 비용(37%)으로 조사됐다.

-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민간 키즈카페 ‘서울형 인증제’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. 안전,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‘서울형 인증 키즈카페’로 지정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‘서울형 키즈카페’ 확충에 나선다는 취지다.
 - 그동안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 방안의 하나로 ‘서울형 키즈카페’ 내에서 식음료 판매와 외부음식 배달을 금지하고(단, 이용자가 가져온 간단한 간식은 허용), 키즈카페 이용시간을 사전예약제로 2시간씩 3회차만 운영하는 등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면서도 민간 키즈카페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.
 - 올해는 민간과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‘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’를 추진하되, 시는 이용자 안전과 편의, 위생관리가 적합한 민간 키즈카페를 선별해서 인증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.

- 서울시가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 소재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사업주 11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, 응답자 91%가 ‘서울형 인증제’에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, 10명 중 7명은 입장료 추가할인이 의무 사항일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
 - 〈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〉 추진에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총 190명의 민간 키즈카페 사업주들이 참여하였으며, 이 중 서울시 소재 키즈카페 운영자는 111명이었다.

- 서울지역 외 지방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추가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 따라, 향후 ‘서울형 인증제’의 안정적 정착 후에는 타 지역으로의 확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.

- 서울시는 7월 중 <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> 참여 업체 모집을 시작한다.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오는 9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약 1년 간 ‘서울형 인증 키즈카페’로서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 사용처 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.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25 개소를 인증하고,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.
-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이후, 7월 중에 서울시 소재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<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> 모집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.
- 서울형으로 인증된 민간 키즈카페는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 사용처로 등록 되어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(<https://icare.seoul.go.kr/>) 및 서울페이플러스 결제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.
-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가 확정되는 9월초 및 11월초, 2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으로,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공지 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또한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한 5개 앱(▲서울Pay+ ▲신한SOL ▲티머니페이 ▲머니트리 ▲신한pPlay)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.
- 올해 서울시는 구매 시 20%가 할인되는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를 약 41 억원 상당 규모로 발매할 예정이며, 이를 위해 현재 개최 중인 서울특별시의회를 통해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를 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.

〈서울형키즈카페머니 20% 할인구매 결제앱(5개)〉				
				
서울Pay+	신한플레이	신한 솔	티머니페이	머니트리

-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는 구매 시 2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‘서울형 키즈카페머니’로 결제하는 경우 평일 입장료를 10%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.
- 시는 <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>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 ‘서울형키즈카페머니’로 결제하는 고객의 평일 입장료를 10% 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.



- 한편,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「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」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. 부담없는 가격으로 미세먼지, 날씨 등 제약없이 모든 아이들의 뛰어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실내놀이터다.
- 현재 8개 서울형 키즈카페 구립(▲종로구 혜화동점 ▲중랑구 면목4동점 ▲양천구 신정7동점 ▲동작구 상도3동점 ▲성동구 금호2·3가동점 ▲강동구 암사2동점 ▲강동구 고덕2동점 ▲광진구 중곡3동점)가 운영 중에 있으며, 오는 8월, 10월에는 각각 제1호(동작구) 및 제2호(양천구)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가 개소한다. 이 밖에도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25개소도 잇달아 개소를 앞두고 있다.
-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“민간 키즈카페 ‘서울형 인증제’를 도입하고 20%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상품권을 출시해 사업주와 양육자, 아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하고자 한다.”며,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.”고 말했다.



서울페이 도어스티커



서울형 인증스티커(안)